해설프로그램 진행 개요서

(소속 및 성명: 송추분소 김봉관)

□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우이령길 탄소중립 이야기
운영목표	2050 탄소중립 국가 정책 간접 참여 및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의 역사적 가치와 자연환경보호를 생각한다.
해설주제	우이령길을 걸으며 자연해설과 탄소중립 캠페인 홍보 활동하기
해설소재	우이령길 이야기(김신조), 캠페인 홍보 활동
운영장소	교현탐방지원센터~유격장
운영시기	사계절
모니터링 주기	월 1회
소요시간	시연 10분 (실제 운영시 60분)
주요대상	시연 대상은 성인 (실제 운영시 초등 고학년 이상~성인)

□ 프로그램 세부 진행

단계	해설단계	주요 내용	준비물	해설지점	소요시간(분)
동기유발	첫만남 아이스 브레이킹	- 해설사 소개 및 일정 안내 - 자음퀴즈를 통한 해설 주제 공유(탄소중립) - 간단한 스트레칭	교구재 (탄소중립)	교현 탐방지원 센터	2
주제별 해설	우이령길 해설(김신조) 및 탄소중립 캠페인	- 우이령길 역사(김신조) - 봄에 피는 꽃(진달래와 철쭉) - 탄소중립 캠페인(리플렛나눠주며 홍보참여)	교구재 사진, 탄소중립 리플렛	교현탐방지원센터~유격장	7
마무리	되돌아 보며 약속	- 참여자와 느낌 공유 - 국립공원 및 우이령길의 소중함과 탄소중립 캠페인을 통한 가치를 생각	-	유격장	1

해설프로그램 시나리오

[동기유발]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안녕하세요, 북한산국립공원송추분소 자연환경해설사 김봉관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우이령길을 걸으며 지금 관찰되는 꽃이나 식물등을 보고, 여기 준비된 리플렛을 나눠주며 캠페인도 간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먼저 처음 만났으니 간단한 퀴즈를 통해 어떤 주제로 된 캠페인 인지를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됩니다. (자음으로 된 탄소중립 글짜를 꺼내며)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탄소중립입니다.
여러분, 탄소중립에 대한 말 들어보셨나요? 현대 문명은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자동차, 공장 등등) 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 등을 늘려서 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이산화탄소까지 모두 상쇄해(산림)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이라고 들어보셨을겁니다~ 2050년은 탄소순배출량이 0이 되는 시간적인 목표를 가리킵니다. 보통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지구의 한계상승 온도를 2도로 설정합니다. 이 이상 온도가 상승할 경우 폭염과 한파 등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구 온도 상승을 이보다 0.5도 낮은, 1.5도로 제한하면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등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바로 1.5도로 억제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인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탄소중립에 적극 참여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함께 우이령길도 걸으며 자연해설도 듣고, 여기 준비된 탄소중립 리플렛을 나눠 주며 홍보하고, 간접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별 해설]
자~ 지금 이곳은 우이령길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우이령길을 기준으로 남쪽의 북한산지역, 북쪽의 도봉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우이령길은 오래전에 마찻길로 생필품과 곡식을 운반하는 소로였으며, 한국 전쟁때에는 피난길로 이용되었습니다. 휴전 후에는 군사작전 도로로 사용되었습니다. 2009년 7월 국립공원에서는 탐방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41년만에 우이령길이 개방되었습니다.
김신조 무장공비들이 이길을 넘어왔다?? 그것은 아닙니다. 1968년 1.21사태(김신조사건)이후, 1969년부터 군부대와 전투경찰대가 주둔하면서 민간인의 출입이 전면금지되었습니다. 이후 우이령길 재개통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립공원공단과 여러 환경단체의 검토와 토론 끝에 우이령길이 탐방예약제 시행과 함께 개방된 것입니다.

(이동하며)
여기 진달래가 피어있습니다. 꽃은 피었는데 잎이 없으면 진달래입니다. 반면 철쭉은 잎과 꽃이 같이 올라오는데 보통 잎이 지고 난 후 꽃을 보게 됩니다. (교구재를 보여주며 비교) 그리고 진달래 화전이라고 하여 화전을 부치거나 숨을 담가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행동이나 인식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또, 철쭉과 진달래를 혼돈하여 철쭉꽃을 먹었다가 배가 아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철쭉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구토나 설사를 동반하는 위험한 성분입니다.

(이동하며)
이제부터는 탄소중립 캠페인 홍보 활동을 할 것입니다. 방법은 여기 제가 준비한 리플렛을 한번 읽어 보시고 우이령길을 지나가시는 탐방객과 사찰을 차량으로 가시는 분들게 드리기만 하면 되는 홍보활동입니다. 피켓을 들고 줄지어 단체로 선창/후창을 하는 것보다 인쇄물을 나눠주고 서로 시간 절약을 하는 장점이 있어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리플렛에는 “2050 탄소중립 실천 체크리스트“와 우이령길의 역사, 사계절 관찰되는 자연자원들에 대한 소개, 간단한 퀴즈풀기, 간략한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천 체크리스트>
★5개 항목중 2가지 이상은 꼭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면 인간과 세상이 모두 행복해집니다~

구분	탄소 중립 내용	지금부터 실천한다	언젠가는 실천한다
1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최대한 제한 하기^^	□	□
2	TV시청 줄이고 가족과 대화를 늘리고!	□	□
3	1주일에 한번이상 대중교통 어때여?	□	□
4	세탁은 모아서 해도 잘 된답니다.	□	□
5	★★★★★사찰 방문은 차량 아닌 도보가능? ^^	□	□

여러분, 이런 캠페인 해보셨나요? 해설에 참여하고 지나가는 차량에게 리플렛을 주는 특색 있는 해설? 즐거움도 있고 의미있는 시간이였다고 생각됩니다.

[되돌아 보며 약속]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끼리 혹은 저와 오늘 보고 들었던 내용에 대해 서로 한 말씀씩 나눠 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동시에 생각하고 우리가 물려줄 미래세대에게 까지 더 나은 상태로 물려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라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까지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앞으로는 나아진 환경과 세상이 되리라 생각하고 여기 계신분들 그리고 저 또한 사람과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멀리서 오시고 소중한 시간 오늘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송추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봉관 자연환경해설사였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